

원주 요진건설산업 12년째 1위 고수

건설업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원주시를 둔 요진건설산업이 토목건축공사 분야 시공능력평가에서 12년째 도내 1위를 지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평가한 시공능력평가액(이하 시평액)을 지난달 31일 공시했다. 도내에서는 요진건설산업이 시평액 3,687억 1,000만원으로 1위를 지켰다. 전국 66위를 기록, 지난해 84위보다 18계단 뛰어올라 이번 발표에도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전국 100위권 내 업체로 이름을 올렸다.

고성 현대아산이 2,096억 2,600만원으로 2위를 유지했으며 원주 동일건설은 1,195억 9,400만원으로 3위에 올랐다. 강릉 신화건설(1,061억 9,600만원)과 정선 대림종합건설(965억 9,500만원)이 각각 4, 5위를 기록했다.

전문건설업체 시평액 순위에서는 원주의 평창건설이 17개 업종 중 미장방수조적(84억 200만원), 비계구조물(86억 9,400만원), 금속 창호(72억 3,700만원), 보링그라우팅(129억 4,400만원) 등 4개 업종에서 도내 1위를 차지했

3,687억 달성 .. 토건업종 전국 66위

도내서 유일하게 100위권 내 랭크

현대아산·동일·신화·대림종전 順

원주 평창건설 전문건설업종 4관왕

다. 또 화천의 대련건설은 토공(328억 2,500만원), 철근콘크리트(226억 4,800만원) 등 2개 업종에서 1위를 기록했다. 나머지 업종별로는 △실내건축공사업 금강아트(81억 3,100만원) △석공공사업 서해(48억 7,100만원) △도장공사업 흥원건설(55억 2,900만원) △지붕판금건축물공사업 그린건설환경(29억 3,000만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웰텍(91억 8,500만원) △포장공사업 삼우아이엠씨(537억 6,300만원) △수중공사업 경진건설(71억 9,900만원) △조경식재업 및 조경시설업 청원조경(55억 5,400만원 · 42억 9,000만원) △강구조물업 한라엔지니어링(59억 4,900만원) △승강기업 태림엘리베이터(21억 3,700만원) 등이 각각 1위 업체로 집계됐다. 김보경기자

◇토목건축공사업 (단위 : 백만원)		
순위	업체명	시공능력 평가액
1	요진건설산업(주)	368,710
2	현대아산(주)	209,626
3	동일건설(주)	119,594
4	신화건설(주)	106,196
5	대림종합건설(주)	96,595

◇업종별 1위 업체 현황		
업종	상호	시공능력 (백만원)
실내건축	금강아트	8,131
토공	(주)대련건설	32,825
미방조적	평창건설(주)	8,402
석공	(주)서하	4,871
도장	(주)흥원건설	5,529
비계	평창건설(주)	8,694
금속창호	평창건설(주)	7,237
지붕건설	그린건설환경(합)	2,930
철근	(주)대련건설	22,648
상하수도	웰텍(주)	9,185
보링	평창건설(주)	12,944
포장	(주)삼우아이엠씨	53,763
수중	경진건설(주)	7,199
조경식재	청원조경(주)	5,554
조경시설	청원조경(주)	4,290
강구조물	(합)한라엔지니어링	5,949
승강기	태림엘리베이터(주)	2,137



478세대 거두리 행복주택 내년 착공

LH공사 강원지역본부 반값 임대주택 내달 최종 승인

【춘천】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춘천에 반값 임대주택으로 알려진 '행복주택' 건설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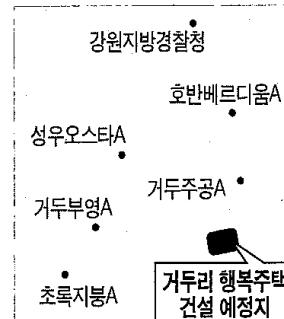
LH공사 강원지역본부는 총 478세대 규모의 '춘천 거두 행복주택' 건설 계획을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계획 지역은 동내면 거두리 1135번지 일원(1만여 m²)이다.

이미 지반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8월 말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앞 두고 있다. 오는 9월께 승인이 이

뤄지면 곧바로 실시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LH공사는 착공 후 1년 뒤인 2017년부터는 분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 중 하나로 신혼부부·대학생·사회 초년생과 취약계층 고령층 등을 위해 짓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철도부지와 도심 유류부지 등을 활용해 세대당 45m² 이하로 건축하며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로 저렴한 점이 특징이다.



◇LH공사가 추진 중인 '춘천 거두 행복주택' 건설공사 계획 부지.(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1135번지)

인근에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편의시설

설도 함께 만들어진다. LH공사 관계자는 "사전 주민설명회가 큰 반발 없이 마무리된 점 등에 비춰 볼 때 국토부 승인 또한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우철 시의원은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돼 지역에 거주하는 사회 초년생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노년층의 보금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지난해 전국 27곳에 총 2만 6,256호가 공급됐다. 올해는 춘천시와 강릉시, 횡성군을 포함해 전국 70곳에서 총 3만 8,636호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무현기자 trustme@knews.co.kr

원주 요진건설 종합건설 시공능력 1위

원주 요진건설이 올 종합건설 시공 능력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표>

2일 대한건설협회 도회에 따르면 올해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을 평가한 결과, 요진건설이 3687억으로 최고액을 기록했다.

2위는 고성 현대아산(2096억원), 3위 원주 동일건설(1195억원), 4위 강릉 신화건설(1061억원), 5위 정선 대림종합건설(965억원)이 차지했다.

■ 올해 강원도내 시공능력평가 현황

순위 도내 전국	업체명	시공능력평가액
1 66	원주 요진건설산업	3687억1000만원
2 103	고성 현대아산	2096억2600만원
3 166	원주 동일건설	1195억9400만원
4 182	강릉 신화건설	1061억9600만원
5 203	정선 대림종합건설	965억9500만원

요진건설은 전국 순위에서 66위로 도내 종합건설업체 중 유일하게 100위 내에 포함됐다. 안은복 rio@kado.net

도내 전문건설 시공능력 17개 분야 1위 선정

올해 강원도내 전문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17개 분야 1위 업체들이 선정됐다.

2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도회에 따르면 실내건축, 토공, 석공, 포장 등 17개 분야 시공능력을 평가해 공시됐다. 안은복

◇ 각분야 시공능력평가 1위 업체 현황

△실내건축=강릉 금강아트(81억원) △토공=화천 대련건설(328억원) △미방조적=원주 평창건설(84억원) △석공=원주 서하(48억

원)△도장=강릉 흥원건설(55억원)△비계=원주 평창건설(86억원)△금속창호=원주 평창건설(72억원)△지붕건조=정선그린건설 환경(29억원)△철근콘크리트=화천 대련건설(226억원)△상하수도=횡성 웨텍(91억원) △보링=원주 평창건설(129억원)△포장=춘천 삼우아이엠씨(537억원)△수증=강릉 경진건설(71억원)△조경식재=강릉 청원조경(55억원)△조경시설=강릉청원조경(42억원) △강구조물=원주 한라엔지니어링(59억원) △승강기=강릉 태림엘리베이터(21억원)

300억 이상 관급공사 최저가낙찰제 폐지

정부 내년부터 실시
공사수행능력 고려
지역업체 참여 확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지방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도록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최저가낙찰제가 없어지고,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

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낙찰제도로 대체된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새롭게 적용할 대형공사 낙찰자 결정기준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새로운 낙찰 기준은 적정한 공사비와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방계약은 모든 공사에 있어 지역업체가 40%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지역 우수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업체에 적정한 공사비를 보장하고, 우수한 시공업체를 우대해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건설공사의 품질평가결과 우수한 실적이 많은 업체에 높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 전에 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에만 입찰자격을 부여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올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실시한 후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백오인